

1위  
ABC 공인 유류·방화부수  
4년 연속 1위

#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LPGA 메디힐 챔피언십 오늘 최종라운드...누가 마지막에 웃을까

## 추격자 김아림, 역전우승을 부탁해!



2020년 US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LPGA 투어에 데뷔한 김아림이 14일(한국시간) 메디힐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역전 우승에 도전한다. 13일 3라운드에 나선 김아림. 사진제공 | LPGA 메디힐 챔피언십

30→9→4위 상승세...선두 리민과 3타차 김아림 "공격적인 플레이하겠다" 자신감 US오픈 우승 이어 '메디힐여왕' 될지 관심



2020년 US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김아림(26)이 통산 2승 기회를 잡았다.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일리시티의 레이크 머세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13번째 대회 'LPGA 메디힐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16억 7000만 원)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중간합계 6언더파 210타를 적어내며 알반 발렌수엘라(스위스)와 함께 공동 4위에 랭크됐다.

3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에 오른 리민(대만·9언더파)과는 3타 차. 리민에 이어 마틸다 카스

트렌(핀란드)과 교포 로렌 김(미국)이 7언더파 공동 2위에 자리했다.

1라운드에서 이븐파 공동 30위에 그쳤던 김아림은 2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며 공동 9위로 순위를 끌어올린 뒤 재차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반에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잡아내며 한껏 분위기를 탄 후 10번(파4) 홀에선 약 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리며 다시 1타를 줄였다.

파4 홀인 11번, 13번 홀에서 잇달아 보기를 범하며 뒷걸음질 치기도 했지만 15번(파5) 홀에서 버디를 잡아 반등에 성공했다. 세컨 샷이 그린사이드 벙커에 빠졌지만 위기 속에서도 세 번째 샷을 홀컵 약 2m 거리에 붙였고, 이를 버디로 연결하며 1타를 더 줄였다.

14번 중 5번 밖에 페어웨이를 지키지 못했던 김아림은 3라운드가 끝난 뒤 "사실 썩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퍼팅감은 괜찮았는데 샷 컨디션이 조금 나빴다"고 밝혔다. "4라운드에서는 스윙도 그렇고 샷 감이 좀 돌아오기를 바란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 좀 더 편을 직접 겨냥할 것이다. 내일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역전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12월 US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올해 본격적으로 미국 무대 도전에 나선 김아림은 데뷔 시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6개 대회에 출전해 4개 대회에서 컷 탈락했다. 시즌 최고 성적은 4월 롯데 챔피언십에서 거둔 공동 10위. 지난 주 샌프란시스코 올림피클럽에서 열린 US여자오픈에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섰지만 이틀간 7오버파에 그치며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3라운드에서 2타를 줄인 신지은(29)은 5언더파 211타로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고, 유소연(31)은 보기 없이 버디만 5개 쓸어 담아 3언더파 213타로 전날 공동 52위에서 공동 17위로 점프했다.

박인비(33)와 유일한 국내파인 이다연(24)은 나란히 2언더파 공동 23위에 자리했고, '디펜딩 챔피언' 김세영(28)은 이븐파 공동 36위에 머물렀다.

▶ 관련기사 2면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손흥민 결승골...한국, 레바논에 2-1 역전승



손흥민이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레바논과 최종전 후반 20분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고양 | 주현희 기자 teh1147@donga.com

### 벤투 "최종예선도 우리 스타일로" 손흥민 "전술·멘탈 더 보완해야"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축구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 안착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은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레바논과 H조 최종전(6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뒀다. 5승1무, 승점 16의 한국은 조 1위로 최종예선에 올랐다.

이른 시간 찾아온 패배의 그림자를 걷어낸 이는 에이스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통해 '월드 클래스'의 반열에 오른 손흥민(토트넘)이 위기에서 번뜩였다. 레바논 수니 사드에게 전반 12분 선제골을 내줘 0-1로 끌려가던 후반 5분 날카로운 오른쪽 코너킥으로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을 유도한 뒤 후반 20분 직접 페널티킥(PK)을 꽂아 넣어 역전승을 이끌었다. ▶ 3면으로 이어집니다

고양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알립니다

#### 스포츠 취재 경력기자 모집

스포츠동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미디어를 이끌어 나갈 스포츠 분야 취재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2008년 창간한 스포츠동아는 1등 스포츠신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2018, 2019, 2020, 2021년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평가에서 스포츠신문 1위, 일간신문 8위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스포츠동아는 젊은 인재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스포츠동아와 동행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부문: 스포츠 취재(축구 농구 야마추어스포츠 등) 경력기자 0명
- 지원 자격: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언론 등 경력 3년 이하
- 전형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 기사 5건(hwp, doc 파일, PDF로 제출)
- 접수 기간: 2021년 6월 14일(월)~25일(금)
- 접수 방법: 이메일 ten06sy@donga.com
- 문의: 스포츠동아 경영기획실 02-361-1608

스포츠동아 유료부수 4년 연속 스포츠신문 1위·종합지 포함 8위...독자여러분 고맙습니다 ▶2면



##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중유형: 과채음료 ● 원산지: 양배추(충청남도(양배추·국산), 사과(충청남도(사과·국산), 브로콜리(충청남도(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충청남도(산사나무열매·국산), 매실(충청남도(매실·국산))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이 없애고 편안한 속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실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